

소셜벤처 선배 노하우 ‘쑥’… 소통·아이디어 공유로 ‘함께 성장’

현장르포

벤처協 ‘소셜벤처 밋업 페스티벌’
선·후배 창업가 네트워킹 자리 마련
파워플레이어 김유재 대표 등 강의
이정민 총장 “스타트업 도전 응원”

“스타트업이 글로벌로 나가는 방법은 딱 하나다. 지금 당장 비행기표를 끊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를 만나라.”

10월의 마지막 날인 지난 31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호텔 월드 사파이어 볼룸, ‘소셜벤처 밋업(meetup) 페스티벌(festival)’ 메인 행사장에 100여 명의 소셜벤처 대표, 관계자들이 소셜벤처 선배 창업가인 파워플레이어 김유재 대표의 강연을 숨죽이면서 듣고 있다.

창업진흥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벤처기업협회가 준비한 이날 행사는 소셜벤처 창업 선·후배들이 모여 소통하고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자리다.

행사에선 김 대표 외에 선배 창업가인 월간계란 주여달 대표, 한국부동산데이터연구소 한승민 대표도 강연자로 나서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올해로 창업 4년차를 맞은 파워플레이어는 ‘온그리디언츠’라는 브랜드로 스킨케어, 헤어·바디용품, 향수 등 유기농 화장품 제조하는 회사다. 현재 40여 가지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파워



벤처기업협회가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한 ‘소셜벤처 밋업 페스티벌’에서 선배 창업가들이 토크쇼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에잇블룸 황현우 대표, 월간계란 주여달 대표, 한국부동산데이터연구소 한승민 대표, 파워플레이어 김유재 대표. /벤처협회

플레이어는 친환경, 비건, 제로웨이스트 등을 추구한다.

김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지향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한국을 넘어 일본, 대만,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UAE, 인도, 러시아 등 수출국만 17개국에 달한다. 수출국은 올해까지 28개국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김 대표는 “해외에 나갈때 정답은 없다. 당장 그냥 해보는 수밖에 없다. 해외 전시회 참여 등 절반 가량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 같다. 무조건 (지원사업에) 신청해라. 우리는 작년에만 약 300개 정도의 지원사업에 서류를 넣었다.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지원서를 쓰면서도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고 조언했다.

언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신청과 본업을 달리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도 나왔다.

주여달 대표는 “지원사업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지출을 증빙하고 결과서를 제출하는 등의 업무가 만만치는 않은 일”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일이 본업과 불일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원사업은 많이 신청해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면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라. 많은 창업가들과 인맥을 쌓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대표가 2020년 창업한 월간계란은 판매하는 계란의 10%를 쪽방촌, 그룹

홈 등에 기부하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창업 초기 1곳으로 시작한 월간계란의 기부처는 현재 9곳으로 늘었다.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배들을 위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 대표는 “창업을 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져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 3년 정도는 본인 급여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워라벨은 생각하지 마라. 친구, 가족, 연인을 만날 시간도 없다. 취미 생활은 꿈도 꾸지 마라”고 강조했다.

한승민 대표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2~3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그 절반이라도 달성할 수 있다. 목표는 크게 잡아라. 그리고 고민을 했다면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창업을 했다면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버티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 대표는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다 창업을 한터라 실매출을 일으키고 매달 얼마라도 돈을 꼭 남겨야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시작했다. 대부분의 창업자는 팀빌딩(team building)을 한다거나 투자유치에 집중하지만 한 달, 한 달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보수적으로 운영했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버티기만 하면 안된다. ‘착한 기업’을 지향하는 소셜벤처도 돈을 벌어야 한다.

한 대표는 “초기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팀원은 사업이 진심인 멤버를 중심으로 최소화해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수익이 빨리 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 수익이 나면 투자자를 찾기도 쉽다”고 설명했다.

선배들의 응원은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된다.

주 대표는 “올 한 해를 꼭 살아남길 바란다. 한 해, 한 해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챌린지다.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길 바란다. 여러분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MYSC 유자인 부대표의 ‘소셜벤처의 개념과 중요성 및 생태계 현황’, 임팩트스퀘어 정성훈 심사역의 ‘임팩트투자 동향과 투자유치방법’에 대한 강연도 펼쳐졌다.

또 입구에 마련한 스타트업 전시부스에 선알스퀘어, 플랫팩토리, 밴아베너, 퍼블러스, 디엑스코드, 이즐리독, 지구는푸르다, 스페이스인, 에이드올, 마치란테, 테이렌, 아티스트아우라, 넥스트커넥트가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며 발길을 잡았다.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은 “디지털 전환과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들의 니즈, 그리고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지금이 창업 적기”라며 “협회는 창업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스타트업들의 도전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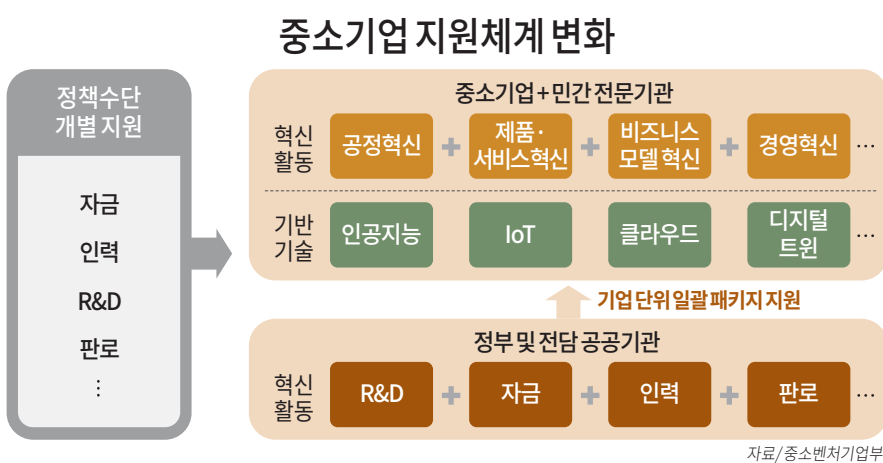
생산성 혁신기업 3000곳 육성… ‘원패스’ 프로그램 도입

중기부,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중소 가치사슬 혁신 지원체계 구축
정부 승인 거쳐 정책수단 일괄 지원

정부가 2027년까지 생산성 혁신 선도기업 3000개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생산성 혁신 원패스(POP)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올해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내년 주요 글로벌 경제 이슈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전(全)주기 생산성 혁신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자금, 연구개발(R&D), 인력 등 기능별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가치사슬(ValueChain) 전반의 혁신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기업에 대해 ‘생산성 혁신 원패스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이 ▲공정 혁신 ▲제품·서비스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

경영 혁신 등 4대 혁신활동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정부 승인을 거쳐 정책수단을 일괄 패키지로 지원받는다.

종합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전담 공공기관이 진단과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을 최종 승인한다. 이후 승인기업에 사업 우선지원, 특례조치 적용, 규제 신속 개선 등 생산성 혁신 원패스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설비자금, R&D, 인력, 마케팅 등 관련 사업의 우선 배정을 통해 승인기업에 최대 130억원을 지원한다.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특례 3종 세트도 적용한다. /김승호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마련한 중견기업 통상현안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중견련
중견기업 신시장 개척 지원
중동·인도시장 진출 모색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의 신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최근 한국의 주요 경제 협력 파트너국으로 부상한 중동과 인도 시장 진출 확대 전략 모색에 나섰다. 중견련은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중동·인도 시장 진출 비즈니스 전략’ 주제의 올해 제2차 중견기업 통상 현안 설명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설명회는 중동 시장 진출 전략, 중동 프로젝트 법적 이슈 대응 방안, 인도 시장 진출 전략 등 전문가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코트라(KOTRA) 홍창석 아시아중아팀장은 ‘중동 시장 트렌드와 한국 진출 전략’ 발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등 기가-메가급 프로젝트로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된 중동 시장 동향과 기회 요인 등을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 BIRD 프로그램 20억 보증투자

48개사 중 넥스젠파워 선정

기술보증기금이 올해 ‘BIRD(Bridge for Innovative R&D) 프로그램’ 선정기업에 보증연계투자를 지원한다.

기보는 연구개발(R&D) 융자연계 BIRD 프로그램에 선정된 48개사 중 넥스젠파워를 보증연계투자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2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보증연계투자는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해 기보가 직접 투자,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보는 BIRD 프로그램 1단계 선정기업을 보증연계투자 우선심사 대상으로 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부산시에 ‘中企 현안과제’ 전달

3개 분야, 17건 건의과제 담아

중소기업중앙회가 부산시에 지역 중소기업 현안과제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응원 등불’을 전달했다.

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기문 회장 등은 이날 부산시청을 방문해 박형준 시장에게 이를 전했다.

이날 전달한 현안과제는 중기중앙회가 부산지역의 업종별 협동조합과 합

계 현안을 논의해 수립한 것으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가덕도 신공항 건설시 분리발주 적극 활용 등) ▲중소기업 협업 촉진(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강화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 뒷받침(중소기업기업승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한 3개 분야, 17건의 건의과제를 담았다. /김승호 기자